

〈일반논문〉

제2차 트렌턴 전투 과정에 나타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

김 형 곤 *

〈목차〉

- I. 서론
- II. 전투 준비
- III. 제2차 트렌턴 전투
- IV. 결론: 워싱턴의 리더십

[국문초록]

제2차 트렌턴 전투는 그동안 미국 독립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무시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축소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투의 실상에 치중한 나머지 총사령관인 워싱턴의 뛰어난 리더십에 관한 세밀한 분석은 거의 놓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제2차 트렌턴 전투가 세밀한 과정을 통해 일어났고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와 더불어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제2차 트렌턴 전투는 워싱턴과 독립군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배수진이었다. 아순핑크 강을 두고 벌어진 전투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었다. 병사 수는 물론 전쟁물자, 무기 등 모든 면에서 독립군보다 훨씬 우수한 영국군과 헛센군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만큼 총사령관의 판단력과 결정력이 너무나 중요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곧 패배를 의미한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다. 이 전투에서 워싱턴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워싱턴은 전투과정 전체를 통해 아낌없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그동안의 패배를 통해 배우는 리더였다. 그는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와 비전을 가진 리더였다. 그는 협력하는 리더였다. 그는 솔선수범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였다. 그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였다.

□ 주제어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 미국 독립전쟁, 제2차 트렌턴 전투, 콘월리스 장군의 리더십, 로버트 모리스

I. 서론

미국 독립전쟁 기 1776년 12월에서 1777년 1월 사이에 벌어진 겨울전쟁은 소규모 전투가 모여진 전쟁이다. 소규모 전투라고 해서 이 전투들이 가지는 하나하나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전투의 결과 전쟁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 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의도하지 않은 전투였지만 우연히 얻게 된 기회를 포착하여 트렌턴 시와 뉴저지의 중심 지역인 프린스턴을 공격하여 적의 전쟁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독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1776년 여름에서 겨울까지의 뉴욕과 뉴저지 전투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영국군과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헛센 용병에게 주도권이 있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독립군은 약 3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지만 연전연패였다. 33,000명의 정규군대에 비해 각각 독립된 13개 주에서 급하게 모집한

17,000명의 '긴급 소집병(minuteman)'으로 구성된 대륙군(독립군)은 군인수에 있어서나 전투경험에 있어서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전투에서 연이어 패하고 뉴저지를 지나 델라웨어 강을 건넌 독립군의 수는 약 6,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독립군 사령관 워싱턴은 이제 막 탄생한 미국이라는 국가는 물론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임을 직감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5개월 동안 비록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패배로부터 워싱턴은 많은 것을 배웠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을 상대로 바다나 강에서 싸우는 것보다 산악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당시에 유행하던 전투방식인 '라인배틀(line-battle)'아니라 소규모 게릴라전이나 기습공격이 유리하다 것도 배웠다. 그리고 영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여러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오로지 독립군의 축인 자산을 죽이거나 체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했다. 워싱턴은 이러한 배움을 통해 전쟁을 주도했다. 지금까지의 방어전을 버리고 공격전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스파이를 적극 이용하여 그동안 자신의 신념과는 다소 먼 것으로 생각한 정보전을 심분 활용했다. 워싱턴은 적이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전장을 선호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게릴라전과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더 이상 워싱턴은 쥘벤의 관습이나 체면에 연연하지 않았다. 워싱턴은 이기는 전투를 선택했다.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이기기 위해 워싱턴은 유럽식의 고전적 전투방식을 버렸다. 적의 허점을 이용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날씨를 이용하고, 밤을 이용하고, 스파이를 활용하고, 때로는 도망을 선택했다. 이기기 위해 워싱턴은 그동안의 모든 전쟁에서 잠정적으로 전투를 중단한 날인 크리스마스를 기습 공격의 디테일로 삼았다.

워싱턴은 이런 방법으로 1776년 12월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눈비가

쉬인 겨울 폭풍이 이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 트렌턴에 주둔하고 있던 헷센군을 공격했다.¹⁾ 헷센군은 선봉부대로 독립군을 추격하여 트렌턴에 와 있었다. 전투 결과 독립군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최초의 진정한 승리였다. 적은 22명 사망에, 83명 중상자가 포함된 896명의 포로로 사로 잡혔다. 주둔지 대장 요하나 랄(Johann Rall) 대령은 사망했으며 25명의 장교도 포로로 잡혔다. 독립군은 대포 6문과 파운드포 3문을 포함한 총, 총검, 화약, 마치 등 수많은 전쟁 물자를 노획했다. 여기에 비해 독립군은 작은 부상을 당한 몇 명을 제외하고 피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투 그 자체로는 피해가 없었더라도 많은 병사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저체온 증상, 영양실조, 탈진 등으로 더 이상 전투에 가담할 수 없는 병사들이 늘어났다.²⁾

그동안 방어만 하다가 처음으로 공격을 펼쳐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워싱턴은 또 다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여세를 몰아 다른 적을 공격할까? 아니면 여기 트렌턴에 주둔할 까? 또 아니면 건너 온 델라웨어

1) 이 전투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 도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형근, 「델라웨어 도강작전에 나타난 조지 워싱턴 장군의 리더십」, 『西洋史學研究』 제28집 (2013), 41-82쪽에 연구되어 있다.

2) 1776년 12월에서 1777년 3월 사이에 벌어진 독립전쟁기 겨울전쟁에 관한 연구로는 단연 David H.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가 돋보인다. 본 연구는 Fisch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리더십을 재조명했음을 밝힌다. 그 외에 이에 관한 연구는 Aran Dean, *Crossing the Delaware: George Washington Fights the Battle of Trenton* (New York: Rosen Classroom, 2003), John Micklos, *Crossing the Delaware and Valley Forge: Two Wild Winter with Washington* (New York: Enslow Elementary, 2008), Claire T. Zvve, *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 A Learning Script for Radio Performance* (New York: Wildside Press, 2009), Jim Murphy, *The Crossing: How George Washington Saved the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Scholastic Press, 2010), Henry F. Carlton, *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 (New York: FQ Books, 2010) 등이 있다.

강을 건너갈까? 워싱턴은 전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구했다. 어떤 장교는 전열을 정비하여 여기서 다른 적을 찾아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어떤 장교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밤 병사들이 너무 젖었고,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대부분 녹초가 되어 있으며, 거기에다 적지 않은 포로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워싱턴은 다시 텔라웨어 강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기고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지난 밤 공격을 위해 집중했던 때보다 더욱 어려웠다. 26일 오후부터 텔라웨어 강에는 세찬 바람에 진눈깨비와 눈비가 내렸다. 춥고, 배고프고, 얼고, 지치고, 아프고, 획득한 전리품과 포로를 함께 이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³⁾

워싱턴과 독립군은 어렵사리 텔라웨어 강둑으로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적을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규모 적에 불과했고 적의 대규모 주력세력은 여전히 자신과 독립군을 추적하여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워싱턴은 27일 저녁 다시 한 번 전쟁위원회를 소집했다. 논의를 시작하기 직전 뉴저지 민병대를 이끌고 있는 존 캐드월러드(John Cadwalader)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 자신은 “이미 1,800명의 병사로 하여금 텔라웨어 강을 다시 건너 트렌턴 인근도시인 버링턴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적의 동태를 살펴보

3) 미국철학협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의 회원인 피니어스 펨버튼(Phineas Pemberton)은 당시 1776년과 1777년의 텔라웨어 계곡의 날씨를 자신의 일기에 잘 기록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차 도강을 한 1월 25일 최저 영하7.2°에서 최고 영하1.6°로 구름이 낀 날씨였다. 당연히 텔라웨어 강은 얼음으로 뒤덮였다. 26일 아침 트렌턴에 있는 헛센군을 공격할 때 날씨는 최저 영하0.5°이고 최고 영상 1.6°였다. 온도는 영상이지만 전날과 달리 비바람이 동반한 폭풍부가 내리고 있었고 저녁이 되면서 눈까지 내렸다. 데이비드 피셔(David H. Fischer)는 펨버튼의 날씨 기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Fischer, *Ibid.*, pp.399-403.

니 적은 이미 엄청난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저들은 뉴저지 동쪽에 있는 주둔지인 엠보이로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전언이었다. 이와 함께 존 캐드월러드는 “만약 우리가 이곳 서남쪽에서 적을 몰라낼 수가 있다면 다가오는 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왔다.⁴⁾ 워싱턴은 펜실베이니아 군의 독자행동에 불평을 했지만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음을 직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소 막연한 전쟁위원회였지만 이제는 주제가 명확해졌다. 다시 한 번 델라웨어 강을 건너 트렌턴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었다. 워싱턴은 캐드월러드의 전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물었다. 가능한 자신은 말을 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가한 장군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장군들은 병사들의 상태, 추운 날씨, 병참, 다가오고 있는 강한 적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민병대가 우리 군과 함께 움직이고 적 주력군이 트렌턴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방향은 다시 강을 건너 트렌턴을 점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워싱턴은 문제를 던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기보다 구성원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자유의지가 실현되는 방법을 익혀가고 있었다. 워싱턴은 전쟁이 시작된 후 불평을 달고 사는 뉴잉글랜드 양키지역, 고집 센 펜실베이니아출신 지역, 자주적인 성향이 강한 뉴저지 지역, 명예를 중시하는 버지니아 지역, 그리고 독립심이 강한 산악지역 출신의 장교와 병사들이 하나의 공동의 대의아래 뭉치게 만들었다. 뒤이어 벌어진 제2차 트렌턴 전투는 이제 막 탄생한 미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4) Cadwalader to Washington, 26 Dec. 1776, W. W. Abbott, Dorothy Twohig, Philander D. Chase, and Beverly H. Runge, eds., *The Papers of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Virginia: Charlottesville, 1988), 7: pp.442-445, 451-4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트렌턴 전투는 그동안 미국 독립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무시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축소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투의 실상에 치중한 나머지 총사령관인 워싱턴의 뛰어난 리더십에 관한 세밀한 분석은 거의 놓치고 있다. 또한 미국 독립군의 승리를 승리자의 관점에서만 고찰한 나머지 패배한 영국의 입장, 특히 영국 사령관 콘월리스의 실패한 리더십에 관한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⁵⁾ 따라서 본고는 제2차 트렌턴 전투⁶⁾가 어떤 세밀한 과정을 통해 일어났고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와 더불어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제1차 델라웨어 도강작전은 특별히 선발된 2,400명의 특공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룬 '배수진(背水陣)'과 같은 전투였다. 제2차 트렌턴 전투 역시 워싱턴과 독립군에게 또 한 번의 배수진이었다. 아순핑크 강을 두고 벌어진 전투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었다. 병사 수는 물론 전쟁물자, 무기 등 모든 면에서 독립군보다 훨씬 우수한 영국군과 헛센군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만큼 총사령관의 판단력과 결정력이 너무나 중요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독립전쟁 기 겨울전쟁(1776. 12~1777. 1)에서 워싱턴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5) Robert Middlekauff, *The Glorious Cause: The American Revolution, 1763-1789*(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lan Taylor, *American Revolutions: A Continental History, 1750-1804*(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7), Robert L. O'Connell, *Revolutionary George Washington at War*(New York: Random House, 2019).

6) 전투가 주로 아순핑크 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아순핑크 강 전투"라고도 한다.

II. 전투 준비

텔라웨어를 다시 건너기로 결정했지만 워싱턴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아프고, 지치고, 잠도 자지 못한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 다시 도강하고 행군하고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문제였다. 심지어 가장 용감함을 자랑했던 병사들까지도 너무나 지쳐 행군하기에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독립군의 방향은 정해졌고 총사령관 워싱턴은 29일 오후에 도강 시간을 정해 명령을 하달했다. 도강이 결정되고 명령을 하달하기 전에 워싱턴은 뉴저지로 진격해 들어갔을 때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했다. 28일 아침에 워싱턴은 모리스타운, 뉴저지 북부지역과 서부지역, 허드슨 강, 뉴잉글랜드 지역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전 사령관과 민병대 대장들에게 “가능한 민병을 많이 모으고, 적의 주력부대의 동태를 잘 살피 적이 움직일 때 후미와 측면공격으로 그들의 이동을 방해해줄 것”을 요청했다.⁷⁾ 그리고 워싱턴은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원활한 도강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했다.

추운 겨울 지친 대군이 강을 건너는데 날씨가 관건이었다. 워싱턴은 미리 캐드월러드에게 수시로 텔라웨어 강 주변 날씨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배로 건널 수 있을지 아니면 얼음이 얼어 걸어서 건널 수 있을지에

7) Washington to Maxwell, McDougall, and Heath, 28 Dec., 1776, Abbott, etc., *The Papers of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7: pp.468-469, 471-472, 472-473.

판단할 수 있도록 강의 상태에 관해 자주 알려주시오.⁸⁾

워싱턴은 델라웨어 강 주변의 변동이 심한 겨울날씨를 걱정했다. 12월 28일 갑자기 눈이 내려 6인치(15.24cm)가 쌓였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기온이 급감하면서 저녁에는 몹시도 추웠다. 29일 아침이 되자 날씨는 맑았지만 온도가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졌다. 군이 막 출발을 시작할 때 델라웨어 강가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사병이 급한 전갈을 보내왔다. 밤 사이에 강이 꽁꽁 얼었다는 보고였다. 워싱턴은 당시 상황을 대륙회의의 장인 존 핸콕(John Hancock)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막 델라웨어 강을 다시 건너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강이 얼어 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를 걸어서 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쉽게 건널 수도 없습니다.⁹⁾

지난 도강은 공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도강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떤 곳은 얼음이 3인치(7.62cm)나 얼어 보병들은 몸을 가볍게 하고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말, 마차, 대포의 무게를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것들은 뒤에 남겨두고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다행히 30일과 31일에는 기온이 오르고 얼음이 녹아 배를 운영할 수 있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새해 전날에 전군이 도강에 성공했다.¹⁰⁾ 도강에 성공했지만 추위가 완전

8) Washington to Cadwalader, 27 Dec., *Ibid.*, 7: pp.458-459.

9) Washington to Hancock, 29 Dec. 1776, *Ibid.*, 7: pp.477.

10) 12월 28일의 날씨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최저 영하2.2°이고 최고도 영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영하0.5°였다. 하루 종일 추위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일 날씨도 매 한가지였다. 최저 영하3.3°까지 내려갔다가 최고도 영하0.2°에 불과했다. 워싱턴의 독립군이 본격적으로 이동한 30일이 되어서야 겨우

가시지 않은 날씨는 군인들을 여전히 괴롭혔다. 태울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와 불을 놓고 서로를 의지하며 온도를 유지했다.

트렌턴에서 그럭저럭 군을 정비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다. 병참장교가 식량이 바닥이 나간다고 보고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량보급은 군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이다.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영국의 병참부대를 모방하여 식량과 다른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병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1776년 여름 독립군의 병참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조직으로 사령관은 조셉 트럼블(Joseph Trumbull)장군이었다. 전쟁초기 트럼블과 그의 부대원들이 큰 어려움 없이 병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것은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참 부대원의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독립군이 연전연패하는 실상을 보고 지역농민이나 방앗간 주인들이 대륙군의 돈이 쓸모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뉴저지 탈환 작전을 앞두고 병참 특히 식량조달의 어려움을 보고받은 워싱턴은 뛰어난 금융인인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에게 “뉴저지는 거의 모든 것이 소거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¹¹⁾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 독립군의 주요 식량은 빵과 비스킷과 소금에 절인 고기였다. 상당기간 대부분의 식량은 주로 중부지역의 주에서 조달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트럼블은 제임스 강, 패러해너 강, 포토맥 강에 인접해 있는 버지니아 주의

영상의 기온을 되찾았다. 최저 기온은 영하 0.5°였지만 최고는 영상 2.2°를 기록했다. 31일 역시 영상 온도를 유지해 델라웨어 강의 얼음이 녹아 배를 이용할 수 있었다.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pp.399-403.

11) Washington to Robert Morris, 30 Dec. 1776, Abbott, etc., *The Papers of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7: p.489.

여러 농장을 찾아다니며 밀가루를 구입했다. 소금에 절인 고기와 군복을 비롯한 여러 군수품은 주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마차로 가져왔는데 그 길은 항상 영국에게 발각될 확률이 커 매우 위험했다. 겨울이 되면서 워싱턴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길고 위험한 보급로를 대신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보급로를 확보했는데 이 보급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독립군 병참업무에 자원하여 병참부 부사령관인 카펜터 와튼(Carpenter Wharton)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다. 와튼은 몇몇 부하를 동원하여 식량을 비롯한 독립군 병참물건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튼이 조달하는 병참물건들은 양과 질이 떨어졌고 그만큼 독립군 병사들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에도 와튼은 대륙회의에는 더 높은 값을 요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트럼블로부터 병참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워싱턴은 그 원인이 와튼에게 있음을 바로 알아 차렸다.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와튼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던 워싱턴은 그동안 병참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와튼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와튼은 병참부 부사령관을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신분이 민간인 사업자로 독립군에 속한 다른 장교나 사병과는 다른 신분이었다. 그래서 워싱턴은 총사령관으로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같은 사업가로 영향력이 훨씬 크고 일찍부터 독립전쟁을 적극 도와주고 있는 로버트 모리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12월 31일 워싱턴은 모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다.

... 우리 군이 작전을 펼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량을 비롯한 전쟁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군의 일부는 아직 강 건너에 있습니다. 시급한 보급을 기다립니다.¹²⁾

이에 눈치를 챈 모리스는 와튼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고 워싱턴에게 바로 답장을 보냈다.

나는 오늘 아침 와튼을 불러 당신에게 즉시 4만 달러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당신이 필요한 병참물자의 경우에 가장 성실하게 조달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곧 나는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 일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군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이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더욱 침묵하고 신중하기를 원하지만 아마도 그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¹³⁾

모리스의 개입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식량을 비롯한 화약, 텐트, 담요 등의 여러 병참물자가 독립군 병참부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군복과 군화는 여전히 부족했다. 혹독한 겨울날씨는 적에게는 물론 아군에게도 괴로움을 주었다. 독립군이 트렌턴으로 온 이상 이제 영국군과 다시 전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군복과 군화의 부족은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총사령관 워싱턴에게 군복과 군화문제보다 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급하게 구성된 대부분의 독립군의 군복무기한이 새해 전날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다. 워싱턴은 또다시 모리스에게 편지를 보내 상의했다.

12) *Ibid.*

13) Robert Morris to Washington, 30 Dec, 1776, *Ibid.*, 7: p.490, 그 후 모리스는 계속해서 와튼을 감시했다. 당시 워싱턴과 와튼 사이에 보급문제를 두고 이야기 - 잘 부탁한다, 잘 하겠다 - 하는 편지가 남아있다. 그 후에도 와튼의 부정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1777년 6월 26일 반역죄로 기소되어 대륙군과 거래를 끝내고 정산하도록 명령받았다.

우리 군대에 퍼져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안전, 관심, 자유의 나무에 있는 도끼가 다시 악의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독립군 대원들이 자유롭게 되어 군을 떠나게 됩니다.¹⁴⁾

워싱턴의 말처럼 독립군의 모두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실 전투경험이 많은 부대원 중 다수가 12월 31일부로 복무기한이 종료되었다. 특히 최고의 전적을 자랑하는 연대의 병사들의 제대결심은 단호했다. 하나는 존 그로버(John Glover)가 이끄는 매사추세츠 주 동북부 해안지대에서 온 마블헤드(Marblehead)해군부대원들이 제대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제대는 특별한 임무를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해안으로 가 사략선으로 영국 배를 공격하고 전쟁 물자를 약탈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활동은 독립전쟁에 큰 도움을 주었다.¹⁵⁾

다른 한 부대는 존 해슬렛(John Haslet)이 이끄는 델라웨어 대륙군 부대였다. 이 부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여름 이후 여러 전투에서 부대원의 손실이 엄청났다. 원래 750명이었던 부대원이 9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새해 이브가 제대날짜여서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집으로 가 버렸다. 이들 중 해슬렛 대령이 있었는데 그는 크리스마스 전투에서 델라웨어 강에 빠져 발이 동상에 걸려 다리를 절록거렸다.¹⁶⁾ 복무기간을 마치

14) Washington to Robert Morris, 31 Dec. 1776, *Ibid.*, 7: p.497.

15) 이때 워싱턴이 마블헤드 해군부대원들의 제대를 기꺼이 인정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워싱턴에게는 독립군의 부대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의 배를 약탈하는 것 또한 중요했다. Christopher Ward, *The Delaware Continentals*(Montana: Literary Licensing, LLC, 2012), p.173.

16) 해슬렛은 곧 있을 프린스턴 전투에서 사망했다. 다른 군인은 대위 토머스 홀랜드(Thomas Holland), 소위 존 윌슨(John Wilson), 상사 루벤 길더(Reuben Gildre)와 두 명의 사병이었다. 홀랜드와 윌슨은 이듬해 4월까지 살아 있었다. 길더는 전쟁동안 능력 있는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1794년까지 외과의사로 살았다. Caesar Rodney, *Letters to and from Caesar Rodney, 1756-1784*(Montana: Literary

고 제대하는 것은 병사들의 권리였지만 당장에 중요 전투를 앞둔 워싱턴은 떠나는 병사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상인으로 펜실베이니아 민병대 장군으로 있는 토머스 미플린(Thomas Mifflin)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6주 동안 복무를 더해주는 병사에게는 10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군인들 앞에 나가 이 전쟁의 대의와 군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나아가 10달러로 조금의 보상을 할 것이라 약속했다. 미플린의 호소에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사들이 복무를 더 하겠다고 약속했다.¹⁷⁾ 이 소식을 접한 워싱턴은 너무나 기뻐지만 여기에 소요될 돈이 문제였다. 1776년 1월 1일 워싱턴은 즉시 대륙회의와 의장인 핸콕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보상금 10달러는 엄청난 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숙하고 훈련이 안 된 신병으로 군을 유지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돈은 사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¹⁸⁾

워싱턴은 다른 부대에도 미플린의 제안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지치고 지친 병사들의 마음은 상당한 보상금의 약속에도 미지근했고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워싱턴의 손짓에 드림이 울렸고 그는 병사들 앞에 나가 호소했다.

Licensing, LLC, 2011), p.153.

17) 미플린은 상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기부했다. 보스턴 포위공격 때부터 대륙군에 가담하여 워싱턴을 도왔다.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pp.271-272.

18) Washington to Executive Committee of Congress and to John Hancock, 1 Jan. 1777, Abbott, etc., *The Papers of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7: pp.500-504.

나의 용감한 동료병사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엄청난 노고와 어려움으로 지쳐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해야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 조금 더 머물러준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유의 대의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대의라 확신합니다.¹⁹⁾

다시 드럼이 울렸다. 워싱턴의 호소에 감동을 받은 한 병사가 “나는 남을 것이다”고 말하자 또 다른 병사도 이에 호응해 “이런 환경에서 집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많은 병사가 앞으로 나가 호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때 남은 병사들 중 절반이 그 후 독립군의 전투에서 죽거나 혹은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다.²⁰⁾

병사들의 호응에 감동을 받은 워싱턴은 약속한 보상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륙회의에 상황을 보고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워싱턴은 또다시 모리스에게 긴급한 편지를 보냈다.

나는 병사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만약 한 달 동안 더 복무를 해주면 10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²¹⁾

19) Historical Socie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California: Arkose Press, 2015), pp.515-519.

20)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p.273에서 재정리.

21) Washington to Robert Morris, 31 Dec. 1776, Abbott, etc., *The Papers of*

늘 그랬듯이 모리스는 워싱턴이 요구한 돈을 준비했다. 모리스는 자신의 돈과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시민의 돈을 구해 새해 아침이 밝기 전에 워싱턴에게 보냈다. 이제 트렌턴에는 워싱턴 자신의 지휘아래 있었던 3,500명의 베테랑 군인과 토머스 미플린이 이끄는 펜실베이니아 민병대 1,500백 명과 그리고 존 캐드월러드가 이끄는 저지 민병대 1,700명이 북쪽 뉴욕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영국군을 상대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트렌턴 전투를 위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났다.

트렌턴은 물론 뉴저지의 여러 지역은 그동안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의 수중에 있었다. 그런 만큼 트렌턴에는 적의 재산은 물론 영국에 충성하는 이른바 ‘충성파’의 재산이 많이 있었다. 약 6,500명의 병사들이 트렌턴 인근에 집결하자 영국군이나 헷센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약탈이 일어났다. 이에 워싱턴은 새해 첫 날에 모든 대륙군에게 “무자비한 약탈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특히 이 명령은 “여성이나 어린이같은 비전투요원에 대한 인간적 대우와 친절한 배려”를 요구했다. 워싱턴은 이것은 “악랄한 약탈을 일삼는 적군(영국군과 헷센군)과 자유와 독립의 대의를 위해 싸우는 미국군을 구분시켜주는 것”이라 확신했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은 “지난 전투에서 사로잡은 헷센 포로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대우할 것”을 명령했다.²²⁾ 워싱턴의 이러한 명령은 지난 뉴욕전투에서 사로잡힌 독립군 포로에 대한 영국군과 헷센군의 비인도적 처사와 비교되었다. 이로써 독립을 위한 명분이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7: p.497.

22) George Washington, General Orders, 1 Jan. 1777, *Ibid.*, 7: p.499, *Pennsylvania Evening Post*, 14 Jan. 1777.

Ⅲ. 제2차 트렌턴 전투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미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다. 두 번에 걸친 델라웨어 도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워싱턴은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워싱턴은 전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했다.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그동안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투의 주도권이 적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투는 방어전이건 공격전이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관건으로 판단했다. 1차 도강작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견인한 이유는 바로 전투의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이라 결론지었다.

워싱턴은 트렌턴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적의 본진을 대적해야만 했다. 워싱턴은 다가오고 있는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아순핑크 강 남쪽으로 펼쳐 있는 높은 언덕에 독립군의 진지와 요새를 구축했다. 언덕 왼쪽은 델라웨어 강이고 오른쪽은 늪지대여서 자연적인 해자가 마련되어 있는 천혜요새였다. 높은 언덕이라 강을 따라 내려오는 적군을 향해 총과 대포가 항상 열려있는 형국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워싱턴은 적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스파이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적의 본진이 있는 뉴욕은 물론 브룬스비크, 엠보이, 프린스턴 등의 도시에는 물론 트렌턴까지 오는 주요 도로를 따라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스파이를 파견했다. 워싱턴은 다가오는 또 한 번의 트렌턴 전투를 앞두고 스파이 활동이 승리에 주요 관건임을 인지하고 이에 소용되는 자금을 미리 준비했다. 12월 30일 워싱턴은 로버트 모리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지금 경화(硬貨, hard money)를 필요로 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은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²³⁾

이에 모리스는 즉시 당시 스파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 - 네덜란드 달러, 영국 실링, 프랑스 크라운 - 을 긁어모아 워싱턴에게 보냈다. 워싱턴은 뉴욕의 『뉴욕 게젯과 위클리 머큐리(New York Gazette and Weekly Mercury)』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휴 게인(Hugh Gain)을 스파이로 활용했다. 초기에 게인은 친휘그 노선의 신문을 발행하다가 11월에 갑자기 친토리 노선으로 선회했다. 워싱턴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⁴⁾

이에 더하여 워싱턴은 다가오는 적을 방해하기 위해 부대를 소규모로 편성하여 프린스톤에서 트렌턴까지의 주요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도록 했다. 트렌턴에서 뉴저지 북동부지역으로 파견한 독립군 게릴라들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지역 민병대와 연합하여 정찰 중인 적을 기습 공격했다. 이들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의 사료가 될 만한 건초를 은밀한 곳에 감추어 적의 기동력을 떨어지게 했다. 물론 이들 게릴라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다가오는 적의 동태를 살펴 워싱턴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워싱턴은 천연 요새인 아순핑크 강 언덕에서 전투준비를 거의 마쳤다. 막강한 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전투준비를 마친 독립군의 사기는 더 높았다. 반면 영국 진영은 전혀 분위기가 달랐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국 리더들은 미국의 반란이 거의

23) Washington to Robert Morris, 30 Dec. 1776, Abbott, etc., *The Papers of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7: p.489.

24) 휴 게인은 전쟁이 끝난 후 워싱턴에 의해 보호되면서 뉴욕시에서 거주하면서 인쇄업과 서점을 경영했다. Ambrose Serle, *The American Journal of Ambrose Serle* (California: Huntington Library, 1940), p.107.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트렌턴의 재앙은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2월 29일 늦은 시간이 영국 정찰병들은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다시 도강해서 아순핑크 강 뒤편에 진지를 구축했다고 알렸다. 대부분의 영국 리더들은 워싱턴이 이렇게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전투준비를 완성할 수 있었던 데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반란군이 크게 증대했기 때문이라 믿었다. 그들은 반란군의 수가 자신들보다도 훨씬 많은 약 16,000명 이상일 것이라 추정했다.²⁵⁾ 물론 그들의 추정은 잘못되었다. 영국 리더들의 이러한 추정은 워싱턴이 파견한 스파이들의 거짓 누설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연전연승을 하며 지난해 겨울까지 워싱턴을 추적하여 뉴저지를 침입해 들어 온 영국군은 불과 한주 사이에 전투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들의 주도권 상실은 특히 시골지역에서 뚜렷했다. 워싱턴이 파견한 소규모 게릴라는 물론 지역 민병대원들이 주 전역에 걸쳐 출몰했다. 반복적인 경계 정보가 영국군과 헷센군 부대에 실시간으로 날아들었다. 워싱턴이 전투준비를 완성해가는 12월 30일 그들은 독립군이 진격해 온다는 정보에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나 무장한 채 서서 잠을 잤다. 헷센군 대위 요한 에발트(Johann Ewald)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우리들 앞에 미국 병사들이 끊임없이 출몰했다. 우리는 4주 전만하더라도 필라델피아를 점령하여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오히려 우리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었다. 만약 워싱턴이 기회를 포착해 진격해 오면 우리는 배를 이용해 도망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미국전역을 내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

25) 헷센군 대위 요한 에발트는 당시 상황을 일기로 기록했다. Johann Ewald, *Diary of the American War: A Hessian Journal*(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79), p.44.

을 너무 과소평가했다.²⁶⁾

새해 첫 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다. 하지만 1777년 1월 1일, 영국장군 찰스 콘월리스(Charles Cornwallis)는 기쁘지 않았다. 그는 5일 전에 뉴욕에서 영국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수화물을 먼저 배에 실었다.²⁷⁾ 바로 그때 한 전령이 달려와 트렌턴의 비극을 보고했다. 그리고 영국군 총사령관 윌리엄 하우(William Howe)가 보낸 명령서를 전달했다. 콘월리스의 영국 방문을 취소되었다. 명령서 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반란군을 찾아 빨리 격퇴시키시오. 그리고 그들을 완전 소탕하시오.²⁸⁾

콘월리스는 기분이 몹시도 언짢았지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뉴욕에서 약 10,000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반란군이 있는 트렌턴을 가기 위해 먼저 프린스턴으로 향했다. 약 50마일(약 80km)의 거리였다. 추적 추적 겨울비와 울퉁불퉁한 도로의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길을 걸어 새해 첫날 밤늦게 프린스턴에 도착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고군분투의 시간이었다. 자신은 3명의 기마병의 호위를 받으며 편안하게 행군했지만 부하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콘월리스는 기분이 엉망이었지만 프린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을 드러냈다. 그는 소수의 부하장군들을 소집해 전쟁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콘월리스는 큰일을 앞두고 워싱턴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질 않고, 단순히

26) *Ibid.*

27) 당시 콘월리스는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휴가를 얻어 영국에 다녀올 작정이었고 승인을 얻어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8) Samuel S. Smith, *The Battle of Princeton* (New Jersey: Philip Freneau Press, 1967), p.13 재인용.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말했다.

내일 아침 트렌턴을 향해 진격해 들어갈 것이다.²⁹⁾

콘월리스의 작전에는 워싱턴의 세세함 같은 것 - 날씨, 식량, 다른 전쟁물자, 군인 수, 진지와 요새구축, 소규모 게릴라부대 편성 활동, 스파이 활동, 전쟁자금 등 - 이 전혀 없었다. 그는 모든 병사가 한 줄로 주요도로인 포스트 로드를 따라 적이 있는 트렌턴으로 진격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사령관 콘월리스의 작전계획에 영국장교들 중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헷센군 대령인 칼 폰 도넵(Carl von Donop)만이 반대했다.³⁰⁾ 그는 두 개의 대열 - 하나는 콘월리스의 작전대로 주요도로를 따라 진격하고, 다른 하나는 뉴저지 시골길을 돌아 워싱턴 군의 우측으로 진격하고 - 로 트렌턴을 진격해 들어가 적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작전이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트렌턴 인근에 보급노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독립군을 포위공격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충고했다. 또한 혹시 있을 수 있는 적의 공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콘월리스는 도넵의 충고를 들은채하지 않고 그동안의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경험 - 약한 적에게는 빠르고 강한 타격이 최고의 전투방법이다 - 을 고집했다. 도넵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에발트 대위는 다음과 같이 썼다.

29) *Ibid.*

30) 도넵은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요하나 탈 대령과 함께 헷센군을 이끌고 트렌턴에 주둔했다. 워싱턴이 1차 델라웨어 도강작전을 펼치는 동안 도넵은 여자와 술과 음식에 취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김형곤, 「델라웨어 도강작전에 나타난 조지 워싱턴 장군의 리더십」.

적은 멸시를 당했지만, 우리는 지난번처럼 대가를 치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³¹⁾

프린스턴에 집결한 콘월리스 군은 영국 정규군만 약 8,000명이상으로 정규군과 민병대를 모두 합친 워싱턴 군보다 많았다. 거기에다 뉴저지의 주요 기지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영국 정규군, 헛센군, 스코틀랜드군 등이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대규모 포병대와 병참물자로 가득한 수백 대에 달하는 마차가 뉴욕과 엠보이와 브룬스비크로부터 프린스턴으로 밀려들어왔다. 말하자면 콘월리스는 군인 수와 병참물자 문제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기에 새해 첫날 저녁 프린스턴 근처에는 영국 최고의 부대들 - 보병, 포병, 기병, 예비부대 등 - 이 거의 다 모여 군의 질적인 문제 있어서도 참으로 우수했다.

콘월리스가 전투를 하는데 필요한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집결한 곳인 프린스턴이 문제였다. 너무나 많은 군인들과 물자가 모여 들자 도시는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많은 영국군과 헛센군은 어차피 진격하기로 되어 있는 트렌턴으로 가는 도로에 집결해야만 했다. 문제는 그 도로가 좁고, 진흙투성이고, 작은 시내와 협곡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단일 노선으로 진격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도둑이 하나의 노선보다 두 개의 노선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였다. 하지만 콘월리스는 단호했다. 헛센군 대위 에발트는 도로에 앉아 무장을 한 채 밤을 보낸 이때를 다음과 같이 썼다.

밤이 되면서 날씨가 음산해지더니 많은 비가 쏟아졌다. 갑자기 높아진 기온으로 언 땅이 녹아 비와 섞여 몹시도 질퍽거렸다. 행진하기에 결코 쉽지 않

31) Ewald, *Diary of the American War: A Hessian Journal*, p.50.

을 것이다.³²⁾

콘월리스는 2일 새벽이 되자 진격명령을 내렸다. 프린스턴에 예비부대로 약 1,000명을 남겼지만 정규군만 9,000명이었다. 진격명령은 내려졌지만 이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것도 단일 노선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데는 예상치 못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진격이 시작되면서 영국 보병 대위 아치볼트 로버트슨(Archibald Robertson)은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³³⁾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상 행진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갑자기 높아진 온도 때문에 땅이 녹고 비와 눈으로 도로가 온통 진흙 높이거나 진창이었다. 병사들의 발목까지 심지어 허벅지까지 잠기기도 했다. 걸음걸음마다 투쟁이었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병사들은 도로를 벗어나 들판으로 걸어갔지만 들판도 마찬가지로였다. 말과 대포와 마차는 그 무게로 인하여 더 깊게 습지 진흙으로 빠졌다. 몇 마일을 가는 것이 고된 노동이었다. 지난 연말까지 추웠던 날씨가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풀렸다.³⁴⁾ 얼었던 땅이 녹아 행군하는 영국군과 헷센군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그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독립군에는 행운이었다.

32) *Ibid.*, p.48.

33) Archibald Robertson, *Archibald Robertson: his diaries and sketches in America, 1762-1780* (New York: New York Public Library, 1971), p.119.

34) 지난 연말 내내 영하 온도였다가 31일에 영상으로 바뀌었다. 1777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서 델라웨어와 트렌턴의 날씨는 갑자기 봄 날씨처럼 온도가 올라갔다. 1월 1일 최저는 영상 5°이고 최고는 무려 10.5°까지 올라갔다. 거기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 바람이 불었다. 1월 2일에도 온도는 영상에서 머물고 있었다. 최저와 최고 온도가 3.8°를 기록했다. 비가 여전히 추적추적 내렸다.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pp.399-403.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신중한 도둑은 경고했지만 오만한 콘월리스가 무시해버린 일이 일어났다. 숲이 울창한 곳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 소규모 게릴라가 공격을 감행했다. 선두에 있어 한 헷센 기병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지만 그가 본 것은 엘리어스 헌터(Elias Hunt)라는 근처에 살고 있는 민간인이었다. 헌터는 헷센 기병을 보고 도망쳤지만 헷센 기병의 칼에 거의 죽을 뻔했다. 그때 두발의 총성이 울렸다. 독립군 게릴라가 헷센 기병과 그의 말을 쏘아 죽였다.³⁵⁾ 새벽에 출발했지만 정오가 되어서야 트렌턴까지 가는 중간지점인 메이든헤드에 도착했다. 다시 트렌턴까지 가려면 온 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었다. 혹시나 독립군 게릴라의 기습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었다.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행군만 하더라도 트렌턴에 도착하면 전투하기가 어려운 밤이 될 것이 뻔했다.

콘월리스는 병사들을 독려하여 가능한 빨리 트렌턴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트렌턴까지 진격하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도로의 열악함에 더하여 큰 사바캉크 강이 내린 비로 인하여 더욱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숲은 울창했다. 당연히 이런 곳에는 워싱턴이 파견한 분견대가 매복을 하고 있었다. 밀고 밀리는 소규모 전투를 통해 영국군과 헷센군의 진격은 더욱 지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콘월리스가 예상한 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지체되었다. 트렌턴 시를 반마일 정도 남겨둔 곳에 워싱턴은 최고의 부하 장군인 내서니얼 그린(Nathanael Green)과 헨리 녹스(Henry Knox)를 대동하고 나와 밀리고 있는 분견대를 격려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두워지기까지 적 진격을 막아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³⁶⁾ 이제 해가 지기까지 30분 남았다.

35) James Wilkinson, *Memoirs of My Own Times*, 3 vols.(California: Arkose Press, 2015), 1: p.136.

36) *Ibid.*, 1: p.138.

해가 질 무렵 영국과 헷센의 총공세로 트렌턴 시가 점령되었다. 콘월 리스는 어두워지기 전에 반란군을 섬멸하고자 그들이 집결해 있는 아순핑크 강 북쪽까지 밀고 들어왔다. 독립군 분견대 대부분은 다리를 건너 진지를 구축해 둔 아순핑크 강 남쪽 언덕에 집결했다. 하지만 일부의 병사들이 채 다리를 넘어 오기 전에 적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독립군의 대포가 작렬했다. 남쪽 언덕에서 북쪽 아래를 향해 쏘는 대포였기 때문에 적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문제는 다리를 건너지 못한 독립군 몇몇이 트렌턴 시내로 도망치다가 적에게 사로 잡혔다. 그들 중 한 명은 장로교 목사로 군목인 존 로스브로(John Rosbrugh)였다. 한 헷센군 무리가 그들의 대장인 도놈에게 데려갔다. 반란군에게는 포로대접을 할 수 없다는 도놈의 말에 헷센군은 그 군목을 마치 사냥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그들은 로스브로의 무기를 빼고, 돈을 빼고, 시계를 빼고,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리고, 엎드려 기도하게 했다. 그리고 총검으로 13곳을 찌르고 사브로 칼로 얼굴을 도려내 죽였다. 헷센군은 그의 시체를 전시했다. 이 장면을 본 영국장교들은 흑인 부대(black regiment)를 지휘한 로스브로 목사의 죽음을 크게 기뻐했다.³⁷⁾

영국군과 헷센군은 여세를 몰아 독립군이 집결해 있는 아순핑크 강을 건너려고 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내린 비와 눈 때문에 강이 깊고 물살이 빨랐다. 그럼에도 몇몇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이미 어두워져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아순핑크 다리를 통

37)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여러 사람이 글로 남겼다. John C. Clyde, *Rosbrugh, a Tale of the Revolution, or, Life, Labors and Death of Rev. John Rosbrugh*(New York: Legare Street Press, 2021), pp.21-23, William Stryker, *The Battles of Trenton and Princeton*(Charleston: Legare Street Press, 2022), pp.266-267, William Dwyer, *The Day Is Ours: How a Ragged Rebel Army Stood the Storm and Saved the Revolution*(New York: Viking Press, 1983), pp.208-210, 379-380.

해 진격해 오려고 애썼다. 워싱턴은 건너편 강어귀에서 독립군을 지휘하며 적들이 다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독려했다. 워싱턴은 다리를 사수하는 것이 그날의 전투를 결정지을 것이라 직감했다. 다리를 사이에 놓고 강 양편에서 수많은 총격과 포격이 오가면서 서로의 사상자를 냈다. 하지만 워싱턴의 지휘아래 독립군은 끝끝내 다리를 사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군과 헛센군은 아순핑크 강 건너편의 트렌턴 시가지에 모두 집결했다. 불빛사이로 보기에 그들의 군세는 독립군을 훨씬 능가했다. 병사 수, 대포, 말, 복장, 총검을 단 개인 무기 등에 있어 모든 것이 초라한 모습의 반란군과는 비교되었다. 이 모습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독립군 오른쪽 부대를 책임진 어서 클레어(Arthur St. Clait)소장 휘하의 제임스 윌킨슨(James Wilkinson) 소령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당시 순간을 다음과 같이 썼다.

... 나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콘월리스는 모든 병사들을 대오를 맞추어 정렬시켰다. 기치(旗幟)가 참으로 대단해보였다. 만약 독립전쟁 전체를 통해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바로 이 때였을 것이다. 30분이면 양군이 뒤엉켜 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은 가장 소중한 아들들을 잃었을 것이다.³⁸⁾

아순핑크 강 다리 사수가 주 임무로 독립군 중앙부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버지니아 연대 대령 찰스 스콧(Charles Scott) 휘하의 로버트 빌(Robert Beale) 소위도 같은 심정으로 당시를 표현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다. 강을 건너갈 수도 없었다. 강에

38) Wilkinson, *Memoirs of My Own Times*, 1: p.138.

는 집체만한 얼음덩어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산으로 후퇴할 수도 없었다. 산과 우리 사이에 영국군과 헷센군이 버티고 있었다.³⁹⁾

독립군 왼쪽 부대의 사병인 존 하우랜드(John Howland)도 당시를 기록했다.

영국군들이 다리와 강 가까이 와서 외쳤다. 우리가 독립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복당한 반역자로 남을 것인지?⁴⁰⁾

하지만 강 하류에서 대치중이던 스티븐 올리(Stephen Olney) 대위는 당시 상황을 조금 다르게 판단했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워싱턴과 함께했다.

분명 아순핑크 상황은 지금까지 가장 큰 위기였다. 나는 그 순간 우리 병사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사적인 모습을 보았다. 사실 우리는 텔라웨어 강을 다시 건너갈 배도 없었다. 혹시 배가 있더라도 우리가 배에 타기도 전에 적은 우리를 격멸시킬 것이었다. ...적들이 집결해 있는 북쪽으로 간다는 것도 불가능했다. 뉴저지 남쪽으로 간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 군을 지원해 줄 더 이상의 지원군도 없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군은 사기가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 믿었다. “신의 섭리가 오늘 밤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다.⁴¹⁾

39) Dennis P. Ryan, *A Salute to courage: The American Revolution as seen through wartime writings of officers of the Continental Army and Nav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pp.55-58.

40) Edwin M. Stone, *The Life and Recollections of John Howland: Late President of the Rhode Island Historical Society* (New York: Andesite Press, 2015), p.74.

41) Catherine Read Williams, ed., *Biography of revolutionary heroes: contain-*

반대편 영국군과 헷센군은 어둠 속에서도 건널 수 있는 얇은 곳을 찾아 강을 건너려고 했다. 서로 간의 수많은 총탄과 포탄을 주고받았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하지만 남쪽 강둑에 미리 구축한 진지에서 쏘는 독립군의 총과 대포의 위력에 적들이 물러났다. 적들 역시 대포를 쏘았지만 그 사거리가 높은 강둑은 미치지 못했다. 두어 번의 포격 공방전이 있었지만 높은 진지를 구축한 독립군에게 유리했다. 콘월리스는 보병을 투입하여 다시 다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독립군의 다리 방어는 더욱 철저했다. 총 세 차례의 진격시도에도 영국군과 헷센군 단 한 명도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독립군의 대포와 산탄총이 작렬했다.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아순핑크 강 다리는 붉게 물들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적군은 물러났다. 어둠과 함께 양쪽 보병들의 총격이 사라졌다. 간혹 대포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상대 진영에 떨어졌고 그를 때마다 어두운 밤이 폭발로 밝아지곤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서로의 대포공방전도 사라졌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했지만 이 전투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리 공방전에 직접 참여한 사병인 휴 캡펠(Hugh Coppel)과 윌리엄 허친슨(William Hutchinson)은 당시를 회고했다.

적이 물러가고 난 후 우리는 다리 위를 살펴보았다. 적의 시체가 너무나 촘촘히 수십 겹 포개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수확기가 지나가고 난 후 밀밭모습과도 같았다.⁴²⁾

제2차 트렌턴 전투(아순핑크 강 전투는 물론 독립군 게릴라와 분견대 전

ing the life of Brigadier Gen. William Barton, and also, of Captain Stephen Olney(Virginia: HardPress, 2018), pp.193-194.

42)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p.307 재인용.

투를 포함) 후 사상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헷센군 대위 에발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양측 모두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다. 헷센군의 한 부대는 아순핑크 강에서만 60명이 실종되었다.⁴³⁾

하지만 영국 측은 아순핑크 강 전투에 대해 침묵했다. 영국은 자신들의 피해가 많을 때 종종 그랬다. 이 또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다. 미국 측 기록 중 하나로 델라웨어 주 민병대 대령인 토머스 로드니(Thomas Rodney)는 “우리는 소수의 사상자를 냈을 뿐이다. 하지만 적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미국 측 공식 기록에서 워싱턴과 그린은 “미국의 사상자는 50명 정도이지만, 적은 500명이상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⁴⁴⁾

밤이 깊어지면서 아순핑크 강 전투는 끝이 났다. 그제야 양쪽 군인들이 지치고 지친 나머지 차가운 겨울 아무데서나 누워서 잤다. 그제야 그들은 그날의 첫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1977년 1월 2일 저녁 7시를 지나면서 양쪽 군대는 서로의 총사령관을 주제로 내일 전투를 위한 전쟁위원회를 개최했다. 콘월리스는 고위 장군들만 소집하여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했다. 오늘밤은 푹 쉬고 내일 아침 전면 공격해서 전쟁을 끝낸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워싱턴은 장군들뿐만 아니라 사병과 그 지역 민간인들까지 참석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졌을 때 준비했다. 워싱턴은 내일 있을 대규모 전투를

43) Ewald, *Diary of the American War*, p.44. 콘월리스는 항상 선봉대에는 영국군이 아니라 헷센군을 앞세웠다.

44) Fischer, *Washington's Crossing*, p.307.

피해 트렌턴을 빠져나와 적의 전초 기진인 프린스턴을 공격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도망이었지만 명목상은 적의 주요 요충지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었다.

IV. 결론: 워싱턴의 리더십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연이은 패배를 통해 총사령관 워싱턴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워싱턴은 그동안 패배한 전투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로 바다와 강에서의 전투는 강하지만 산악전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영국은 많은 병사로 전투하는 라인베틀의 싸움은 강하지만 소규모 분견대 싸움이나 게릴라 싸움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전쟁은 주요 도시는 물론 심지어 수도를 점령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독립군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 자신을 죽이거나 체포할 때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워싱턴은 위기 앞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교훈을 알고 실천했다.

제2차 트렌턴 전투는 독립전쟁 전체로 보아 결코 크지 않은 전투였다. 이 전투는 양쪽 군대가 전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대도시를 뺏고 빼앗긴 전투도 아니었다. 하지만 워싱턴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투는 참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투였다. 이 전투는 독립군이 처음으로 주도권을 가진 전투였다. 또한 이 전투는 그 후 몇 년간 계속된 전투에서 강한 적을 상대로 약자가 승리를 담보하는 훌륭한 전투 모델 - 기후와 지형지물과 시간을 활용, 방어전이자 공격전, 기습전, 스파이 활용,

소수 분견대 활용, 게릴라 부대 활용, 전투장소 선정 등 - 이 되었다. 한마디로 워싱턴은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가 모아질 때 궁극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직감했다. 워싱턴은 2차 트렌턴 전투 이후 벌어진 대부분의 전투에서 상황에 따라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승리를 담보했다. 따라서 제2차 트렌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나아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또 하나의 역사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오합지졸과 같은 '긴급 소집병'으로 구성된 미국이 세계 최강 군대와 최고 부자의 나라를 상대로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본 바와 같이 총사령관 워싱턴의 리더십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워싱턴은 배움의 리더였다. 그는 패배 속에서 이기는 길을 배웠다. 워싱턴은 비전의 리더였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를 설득했다. 그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했다. 그는 과정에서도 목표에서도 보편가치 - 자유, 독립, 휴머니즘 등 - 를 실천했다. 워싱턴은 협력의 리더였다. 그는 전쟁 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했다. 워싱턴은 술선수범하는 리더였다. 그는 '공격 앞으로'만 외치고 자신은 진중 깊숙이 숨은 그런 겁쟁이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최전방에서 군사들과 함께 호흡했다. 워싱턴은 권한을 위임할 줄 아는 리더였다. 그는 지역 민병대, 스파이, 분견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은 혁신하는 리더였다. 그는 과거, 관행, 신분, 계급 등 이른바 학연, 지연, 혈연에 억매이지 않았다. 그는 명분에 억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리더였다.

그러면 미국 독립전쟁에서 강자인 영국이 약자인 미국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트렌턴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라 일련의 탐색전에 불과했다. 콘월리스는 이런 탐색전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침묵했다. 콘월리스는 세계 최강, 세계 최고의 나라가 단지 탐색전에 불과한 사소한 전투에서 미약한 반란자들에게 패배했다는 것

이 알려지면 그들 체면이 말이 아니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콘월리스는 세계 최강의 군대와 그 당시 최강의 용병인 헛센군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독립군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과거, 관행, 신분, 계급 등 이른바 학연, 지연, 혈연에 억매어 있었다. 그는 그 후 계속된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영국이야! 식민지 주제에!”. 오만과 편견이다.

18세기 말의 ‘미국 독립전쟁’은 20세기 중반의 ‘베트남 전쟁’과 평행이론이다. 세계 최강의 영국이 그들의 식민지인들에게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의 미국이 베트남인에게 패배했다. 이 두 전쟁은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놀랄 정도로 비슷하다. 영국이 미국의 게릴라에 패배했듯이 미국이 베트남의 게릴라에게 패배했다. 강자가 약자에게 패배한 전형이다. 오만과 편견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2023.02.20. 투고 / 2023.03.23. 심사완료 / 2023.03.31. 게재확정)

[Abstract]

George Washington's leadership in the course of the Second Battle of Trenton

Kim, Hyunggon

The 2nd Battle of Trenton has been almost ignored in the research on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is not without diminished aspects. In addition, most of the studies focus on the reality of the battle and almost miss a detailed analysis of the outstanding leadership of Washington, the commander-in-chief.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Second Battle of Trenton occurred through detailed processes and what historical significance it had, as well as how George Washington's leadership appeared in each such process.

The 2nd Battle of Trenton was the moment of absolute crisis for Washington and the Independence Army. The battle over the Assunpink Creek had nowhere to retreat. It was another moment of crisis in which they had to defeat the British and Hessian forces, who were far superior to the Independence Army in all respects, including the number of soldiers, war supplies, and weapons. That is why the commander-in-chief's judgment and decisiveness were so important. A leader's poor judgment and decision means defeat soon. We can see how excellent Washington's judgment and decisions were in this battle. Washington displayed unstinting leadership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battle. He was a leader who learned through defeat. He was a leader with a goal and a vision he had to achieve. He was a collaborative leader. He was a leader who led by example and delegated authority. He was an innovative and pragmatic leader.

□ Keyword

George Washington's Leadership, American Revolutionary War, the Second Battle of Trenton, General Cornwallis' Leadership, Robert Morris

[참고문헌]

- Abbott, W. W. and Twohig, Dorothy, etc. eds., *The Papers of George Washington, Revolutionary War Series*. Virginia: Charlottesville, 1988.
- Carlton, Henry F. *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 New York: FQ Books, 2010.
- Clyde, John C. *Rosbrugh, a Tale of the Revolution, or, Life, Labors and Death of Rev. John Rosbrugh*. New York: Legare Street Press, 2021.
- Dean, Aran. *Crossing the Delaware: George Washington Fights the Battle of Trenton*. New York: Rosen Classroom, 2003.
- Dwyer, William. *The Day Is Ours: How a Ragged Rebel Army Stood the Storm and Saved the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1983.
- Ewald, Johann. *Diary of the American War: A Hessian Journal*.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79.
- Fischer, David H. *Washington's Cross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Historical Socie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California: Arkose Press, 2015.
- Micklos, John. *Crossing the Delaware and Valley Forge: Two Wild Winter with Washington*. New York: Enslow Elementary, 2008.
- Middlekauff, Robert. *The Glorious Cause: The American Revolution, 1763-17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Murphy, Jim. *The Crossing: How George Washington Saved the*

- American Revolution*. New York: Scholastic Press, 2010.
- O'Connell, Robert L. *Revolutionary George Washington at War*. New York: Random House, 2019.
- Robertson, Archibald. *Archibald Robertson: his diaries and sketches in America, 1762-1780*. New York: New York Public Library, 1971.
- Ryan, Dennis P. *A Salute to courage: The American Revolution as seen through wartime writings of officers of the Continental Army and Nav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9.
- Serle, Ambrose. *The American Journal of Ambrose Serle*. California: Huntington Library, 1940.
- Smith, Samuel S. *The Battle of Princeton*. New Jersey: Philip Freneau Press, 1967.
- Stone, Edwin M. *The Life and Recollections of John Howland: Late President of the Rhode Island Historical Society*. New York: An-desite Press, 2015.
- Stryker, William. *The Battles of Trenton and Princeton*. Charleston: Legare Street Press, 2022.
- Taylor, Alan. *American Revolutions: A Continental History, 1750-1804*.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7.
- Ward, Christopher. *The Delaware Continentals*. Montana: Literary Licensing, LLC, 2012.
- Wilkinson, James. *Memoirs of My Own Times*. California: Arkose Press, 2015.
- Williams, Catherine R. ed., *Biography of revolutionary heroes: containing the life of Brigadier Gen. William Barton, and also, of Captain Stephen Olney*. Virginia: HardPress, 2018.

Zwve, Claire T. *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 A Learning Script for Radio Performance*. New York: Wildside Press, 2009.

김형곤, 「델라웨어 도강작전에 나타난 조지 워싱턴 장군의 리더십」, 『西洋史學研究』, 제28집, 2013.